

클린스만호, 모래바람 잠재워야...아시안컵 중동 3개국, 4강행

2연패 노리는 카타르 비롯해 이란·요르단, 4강 한국, 호주 꺾고 4강 진출...7일 요르단과 대결

한국 축구가 중동의 '모래바람'을 잠재우고 64년 만에 아시안컵 정상 탈환에 성공할 수 있을까. 이제 2승만 남았다. 위르겐 클린스만(독일) 감독이 이끄는 축구 대표팀이 3일(한국시간) 열린 호주와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카타르 아시안컵 8강전에서 연장 승부 끝에 손흥민(토트넘)의 극적인 프리킥 역전 결승골에 힘입어 2-1로 승리했다. 패색이 짙은 후반 추가시간 황희찬(울버햄튼)의 페널티킥으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고, 손흥민의 마침표로 기적적인 드라마를 연출했다. 대회 4강도 모두 정해졌다. 한국을 비롯해

개최국이자 대회 2연패를 노리는 카타르, 강호 이란, 요르단이다. 한국을 제외한 3개국이 모두 중동세다. 이로써 2019 아랍에미리트(UAE) 대회에 이어 두 대회 연속으로 중동 3개국이 4강에 진출했다. UAE 대회에선 카타르, 이란, UAE가 올랐다. 당시 일본이 유일하게 비중동 국가 중 4강에 올랐다면 이번엔 클린스만호다. 한국은 조별리그에서 한 수 아래로 평가받던 요르단(2-2), 말레이시아(3-3)와 비기며 자신감을 구겼지만 토너먼트에서 끈질긴 뒷심을 발휘했다. 한국과 조별리그에서 비겼던 요르단은 8강전에서 중앙아시아의 돌풍을 이끈 타지키스탄

을 1-0으로 꺾으며 처음으로 4강에 올랐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21위의 강호 이란은 유력한 우승후보 일본을 상대로 2-1 역전승을 거두며 우승 도전을 이었다. 이란도 1976년 대회 우승이 마지막으로 한국만큼이나 절실하다. 48년만의 정상 도전이다. 개최국 카타르는 우즈베키스탄과 1-1로 비긴 뒤, 승부차기에서 3-2로 웃어 두 대회 연속 우승에 한걸음 더 다가갔다. 한국이 준결승에서 요르단을 꺾으면 카타르-이란의 승자와 우승을 다툰다. 모래바람을 잠재워야 한다. 수비의 핵 김민재(바이에른 뮌헨)가 경고누적으로 요르단과 경기에 출전할 수 없어 수비진 운영이 변수로 부상했다. 한국과 요르단의 경기는 7일 00시 알라이얀의 아흐메드 빈 알리 스타디움에서 열린다. 카타르와 이란은 하루 뒤인 8일 00시 대결한다. 뉴스



'경고 누적' 김민재, 요르단전 못 뚫다...클린스만의 수비 조합은?

7일 오전 0시 요르단과 아시안컵 4강전 바레인·호주전서 경고 받은 김민재 결정 울산현대 수비 라인 혹은 백스리 가능성

(AFC) 카타르 아시안컵 4강전에 결정하는 가운데, 어떤 수비 조합이 선발로 출격할지 관심이 쏠린다. 클린스만호는 오는 7일 0시(한국시간) 카타르 알라이얀의 아흐메드 빈 알리 스타디움에서 요르단과 아시안컵 4강전을 소화한다. 지난 1960년 제2회 대회 우승 이후 64년 만의 우승을 노리는 한국은 목표 달성까지 단 두 결승만 남겨놓고 있다. 이번 4강전은 한국과 요르단의 리턴 매치다. 두 팀은 지난달 20일 아시안컵 조별리그 E조 2차전에서 붙은 바 있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23위인 한국이 86

위로 약체인 요르단에 대승을 거둘 거란 예상과 달리, 치열한 공방전 끝에 2-2 무승부를 거뒀다. 실제 요르단은 이번 대회 4강까지 오르며 약체가 아닌 '북병 그 이상'의 활약을 선보이고 있다. 4강전 역시 쉽지 않은 한 판이 예상된다. 하지만 한국은 준결승전에 온전한 전력으로 나설 수 없다. 지난달 15일 바레인과의 조별리그 첫 경기(3-1 승)에서 경고를 받았던 김민재가 지난 3일 호주와의 대회 8강전(2-1 승) 또 옐로카드를 받아 경고 누적 징계로 결장한다. 클린스만호에는 큰 타격이다. 김민재는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의 강호 뮌헨에서 주전으로 뛰는 월드클래스 수비수다. 안정적인 수비는 물론, 뛰어난 패스 능력까지 갖춰 공수 다방면에서 중요한 존재다. 이번 대회에서도 김민재는 부동의 주전 수비수였다. 김민재를 중심으로 정승현, 김영권(이상 울산 HD)이 돌아가며 짝을 이뤘다.

그러나 준결승전에서 김민재가 결장함에 따라, 주전에 가까운 김영권-정승현 라인으로 중앙 수비가 꾸려질 것으로 보인다. 대표팀에서는 수비형 미드필더로 뛰지만, 소속팀에서는 중앙 수비로 활약 중인 박진섭(전북현대)을 쓸 가능성도 있다. 클린스만 감독은 호주전 경기 후 기자회견을 통해 "김민재를 쓸 수 없다는 건 안타깝지만 대안은 있다"며 "정승현이 나올 수 있고, 수비형 미드필더로 뛰고 있는 박진섭을 쓰는 등 변화가 있을 수 있다. 백스리가 될 수도 있다.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김영권-정승현 라인은 프로축구 K리그 울산현대의 리그 우승을 이끈 핵심 멤버다. 또 호주전을 기준으로 양 측면 수비를 책임졌던 설영우, 김태환(전북현대)은 2023시즌 함께 백포 라인을 구축했던 조합이다. 수비형 미드필더 박용우(울 아인) 역시 이적 전 이들과 호흡을 맞췄으며, 수문장 조현우

는 누구보다 울산 멤버들을 잘 아는 골키퍼다. 김민재의 부재를 조직력으로 채울 수 있을 전망이다. 더욱 안정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다. 토너먼트는 패배와 동시에 탈락인 만큼, 클린스만 감독의 말처럼 김영권, 박진섭, 정승현으로 구성된 백스리 전술을 쓸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 지난달 31일 사우디아라비아와의 16강전(승부차기 4-2 승)에서 상대 맞춤 전술로 백스리를 사용한 바 있다. 다소 낮은 전술이었지만 요르단보다 강한 사우디를 상대로 좋은 수비력을 보였던 만큼, 또 한 번 사용할 수도 있다. 박진섭은 클린스만호의 주전급은 아니지만, 이번 대회에서 교체로 뛰어 안정감을 뽐내는 중이다. 호주와의 경기에서도 200cm 장신 수비수 해리 수타(레스터 시티)를 막으며 남다른 수비력을 과시했다. 클린스만호가 김민재의 부재를 잘 메워 요르단전을 승리로 마친다면, 준우승에 그쳤던 지난 2015 호주 대회 이후 9년 만에 결승에 오른다.



빙속 김민선, 월드컵 6차대회 500m 금메달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단거리 간판 김민선(의정부시청)이 2023~2024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월드컵 6차 대회에서 트랙 레코드(경기장 최고 기록)를 작성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민선은 4일(한국시간) 캐나다 퀘벡에서 열린 대회 여자 500m 디비전A 1차 레이스에서 37초69로 결승선을 통과, 정상에 올랐다. 주종목인 500m에서 1위에 오른 김민선은 올 시즌 월드컵 3차, 4차 대회에 이어 3번째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해 11월에 열린 월드컵 2차 대회 여자 500m 2차 레이스에서 동메달을 수확한 이후 7회 연속 메달을 수확하고 있다. 이날 우승으로 랭킹 포인트 60점을 추가한 김민선은 460점으로 2위를 유지했다. 474점을 기록한 1위 에린 잭슨(미국)의 뒤를 바짝 쫓고 있다. 김민선에 0.01초 차 뒤진 펠릭스 록(네덜란드·37초70)이 2위, 38초05로 통과한 티안뤼빙(중국) 3위에 이름을 올렸다. 김민선과 함께 출전한 이나현(노원고)은 38초72로 13위에 자리했다.

우승을 거머쥔 김민선은 "이번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해 뿌듯하고, 무엇보다 세계선수권 대회를 앞두고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만족스러운 경기였다. 다가오는 대회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같은 날 대회 남자 매스스타트에 출전한 정재원(의정부시청)은 7분56초11을 작성하며 2위를 차지했다. 1위 사사키 쇼무(일본·7분56초06)와 0.05초 차였다. 월드컵 4차 대회 은메달, 5차 대회 금메달을 목에 건 정재원은 6차 대회에서 은메달을 따내는 등 3연속 메달을 획득했다. 함께 경기를 펼친 베테랑 이승훈(알펜시아)은 8위를 마크했다. 정재원은 "4, 5차 월드컵에 이어 6차 월드컵에서도 메달을 목에 걸 수 있게 돼서 기쁘다. 세계선수권대회 이전에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게 돼서 더 기쁜 것 같다"며 "월드컵 랭킹 종합 2위로 시즌을 마무리해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다. 세계선수권대회에서도 더 좋은 성적을 올리기 위해 준비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팅 훈련 시작' 오타니 "MLB 개막전 서울시리즈 출전할 것"

"피칭 훈련은 신중하게 시작할 것"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LA 다저스로 이적한 오타니 쇼헤이(30)가 2024시즌 개막전 '서울시리즈'에 출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다저스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가 맞붙는 서울시리즈는 오는 3월20일, 21일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린다. 오타니는 지난해 오른쪽 팔꿈치 수술 후 재활과 훈련을 병행하고 있다. 재활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정상적으로 스프링캠프에 참가할 예정이다. 오타니는 4일 캘리포니아주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팬페스트를 통해 서울시리즈에

지명타자로 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그는 "현재 티 베팅과 토스 베팅을 시작했다. 100% 하는 느낌이다. 애리조나 캠프에 들어가서 라이브 베팅 등을 소화할 예정이다. 한국에서의 개막전은 출전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대로 순조롭게 진행되면 개막전에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캐치볼 등은 시작하지 못했다고 했다. 오타니는 "애리조나 캠프에 들어가서 가볍게 던지는 연습을 할 것이다. 피칭은 신중하게 시작할 것이다. 하지만 첫 번째 팔꿈치 수술 때보다 재활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브랜드 공식 다저스 단장은 "오타니가 타격을 시작했다. 그는 정말 활기차게 준비하



고 있다. 개막전에서 지명타자로 뛸 수 있을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2023시즌까지 LA 에인절스에서 뛰었던 오타니는 지난해 12월 다저스와 10년 총액 7억 달러라는 초대형 계약을 체결했다. 뉴스

피겨 차준환, 발목 부상 딛고 4대륙선수권 동메달...2년만에 입상

2022년 우승 이후 2년 만에 시상대 올라 한국 피겨스케이팅 남자 싱글 간판 차준환(고려대)이 발목 부상을 딛고 2년 만에 4대륙선수권대회 시상대에 섰다. 차준환은 3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2023~2024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스케이팅 4대륙선수권대회 남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기술점수(TES) 91.77점, 예술점수(PCS) 85.88점을 합해 177.65점을 받았다. 쇼트프로그램 점수 95.30점을 합해 총점 272.95점을 받은 차준환은 3위를 차지했다. 가키야마 유마(일본)가 307.58점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사토 슌(일본)이 274.59점으로 은메달을 가져갔다. 2022년 이 대회에서 금메달을 일군 차준환은 2년 만에 입상에 성공했다. 지난해에는 4위로 아쉽게 메달을 놓쳤다. 24명의 선수 중 가장 마지막 순서로 빙판 위

에 선 차준환은 프리스케이팅 곡인 '더 배트맨'에 맞춰 연기를 시작했다. 차준환은 첫 구성요소인 쿼드러플 살코를 완벽하게 뛰어 기본점 9.70점에 수행점수(GOE) 3.60점을 얻었다. 그러나 이어 시도한 쿼드러플 토티프에서는 착지가 흔들리면서 GOE 2.71점이 깎였다. 3번째 점프 과제인 트리플 러츠-트리플 루프 콤비네이션 점프에서는 어텐션(에지 사용 주의) 판정이 나와 GOE 0.76점을 잃었다. 플라잉 카멜 스피를 레벨4로 처리한 차준환은 트리플 러츠 점프에서 실수가 나와 GOE 2.19점을 손해했다. 스텝 시퀀스(레벨4)로 전반부 연기를 마무리한 차준환은 10%의 가산점이 붙는 후반부에는 완벽한 연기를 선보였다. 트리플 악셀-더블 악셀 시퀀스 점프를 깔끔하게 뛰어 기본점 12.43점에 GOE를 1.60점을 쟁겼고, 트리플 악셀도 완벽하게 소화했다. 트

리플 플립-싱글 오일러-트리플 살코 콤비네이션 점프도 무난히 뛰었다. 점프 과제를 모두 마친 차준환은 체인지 풋 콤비네이션 스핀을 레벨4로 연기했다. 차준환은 코레오 시퀀스, 플라잉 체인지 풋 콤비네이션 스피(레벨4)로 연기를 마무리했다. 차준환은 2023~2024시즌 국제 메이저 대회에서 메달을 딴 것은 이번 대회가 처음이다. 뉴스

